

연감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YEARBOOK

2009 경기문화재단 연감



경기문화재단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예술적 감동이 전해지는 문화중심지 경기도를 만들어 갑니다

발간사

I . 2009년 일반현황

1. 조직도 _ 07
2. 기본재산 현황 _ 08
3. 인원현황 _ 08
4. 2009 관람객 현황 _ 09

II .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사무처(문예진흥사업) _ 11

문화정책 과제 개발 및 정보 서비스
문화예술 생산, 유통 촉진
문화예술 공공가치 확산
지역문화 균등 발전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통합 홍보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2. 경기문화재단연구원 _ 57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3.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 _ 75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개관.운영
경기도자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개관.운영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경기창조학교 설립.운영

4. 박물관 건립 _ 109

어린이박물관
선사박물관

5. 부록 _ 115

경기문화재단 정관

다가올 미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30만년 전 구석기인들의 발자취부터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실학자들의 정신까지 녹아 숨 쉬는 역사문화의 원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 시대를 대비해 이처럼 비옥한 경기도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도민의 삶 전체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도록 힘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재단은 지난 1997년 설립 이후 2008년 박물관·미술관을 통합하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고유 업무 이외에 10여개에 이르는 문화예술기관을 통합운영하는 거대 문화기관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재단의 2009년은 이같은 변화 위에 경기도 문화예술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닦는 귀중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많은 난관을 뚫고 2009년 하반기 경기창조학교를 비롯하여 실학박물관, 경기창작센터 등을 차례로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치가 큰 산성도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인류의 값진 문화유산 정식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채롭게 전개된 2009년의 발자취를 『2009 경기문화재단 연감』으로 엮어 변화의 성과는 물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09년 연감』의 특징은 불필요한 면과 이미지를 최대한 배제하여 재단사무처와 산하 박물관·미술관 등 운영기관들의 주요 사업 핵심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분석·정리한데 있습니다. 재단 사무처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구체적 업무영역 별로 분석·정리하여 재단 고유의 문화예술지원정책 기초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크게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등 4부분으로 정리하여 지원대상과 업무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한 8개 통합운영기관들은 각 기관별 구체적 특징과 주요 전시내용 및 고유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개별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개관을 앞둔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을 별도로 소개하여 일류 문화선도 기관으로서 미래의 재단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단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매력 있는 ‘경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 경기’의 폴뿌리인 도내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본연의 지원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가 선도하는 21세기를 맞아 경기도 문화예술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재단의 역할과 사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도민 모두가 ‘문화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대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